

P 선생님께

李 炫 錫
(慶星大 英語英文學科)

P 선생님께.

고르지 않은 환절기에 건강하십니까?

비관적 지식인들은 모름지기 양면에 날이 선 칼을 하나씩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론이 생각나 뜬금없이 한 자 적어 봅니다. 사실 요즘처럼 비판이 무시로 행해지고, 현상에 대한 갖가지 대안이 속출하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대학가의 분위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알고는 있었되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생산적 비판이 백출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의 말미를 보내던 시절, 그러니까 그 기억하기도 괴로운 유신 말기 때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느낄 만큼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변화는 물론 그간의 괴로웠던 시절 동안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왔던 많은 민주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의 지도하에, 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 만큼의 투쟁 역량을 보여 주었던 이름 없는 민중들의 땀과 피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은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작년 봄, 그러니까 당

시의 시국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사 표명을 위해 저마다가 실존적 고뇌를 아끼지 않던 그 시절, 그 고뇌의 결과—이론바 서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를 두고 한 친구가 냉소적으로 내뱉던 말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기회주의자들인 교수들까지 돌아서는 것을 보니 이제 이 정권도 끝났군!”

그때 저는 아마 자신 없는 어조로 무언가 불만스러운 뜻을 표명한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말이 결코—그 당시의 저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처럼—자신의 좌절된 학업에서 비롯된 교수직에 대한 개인적 반감 따위의 토로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론바 실천적 이론의 탐구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방패삼아 당면한 행동에의 요구를 외면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건 솔직히 말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구자도 있어야 한다는 류의 이론바 ‘역할 분담론’에서가 아니라 교수라는 직업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는 행동이었던 듯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수들처럼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없을 않을까

요? 냉정하게 이야기 해서 교수는 고용된 노동자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자유로움, 작업 공간의 고립분산성, 감독자의 상대적 不可視性 등이 교수로 하여금 그의 직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로부터 초연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교육 행위가 갖는 독특한 의미를 들어 교수직에 대한 이같은 통속화(?)를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교육이야말로 기존 체제의 재생산을 담보해 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 아닐런지요. 교과목의 선정, 성적 우열자의 가름, 교육과정에서의 일상적 가치 전달 등을 통해서 교수들은 개인적인 의도가 어찌 하든간에 모두가 학생들을 이 사회(와 그것을 규정하는 체계)에 적합한 인물로 형성시키고 분류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관점을 지니는 것은 교수로서는 자가당착적인 일이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가 그런 요지의 강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안에 그칠 것이고, 우리 시대의 사회적 동력학은 그와 같은 강의를 거친 학생을 ‘자유 민주 사회’의 유능한 고등교육 수확자로 적소에 배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수는 자본과 생산 노동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존재일 뿐인 것으로서 그들 사이가 보다 원만히, 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 주는 기능인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파행성을 비판은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본질적 대안은 제시할 수 없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파행적 체제의 유지를 도와주게 되는 자를 흔히 소시민이라 이름합니다. 자본과 노동의 갈등하에서 소시민은 끊임 없이 동요하며, 저마다 독자적인 소경영으로 자율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대망하지요. 그러나 그 세계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는 거의 언제나 현상의 유지와 근본적 변혁의 주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P 선생님!

오늘날이야말로 이와 같은 선택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라고 단언한다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은 교수 사회에 드리워져 있던 자유로운 인텔리겐차라는 자기도취적 이데올로기를 깨치고 한 정신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철저히 자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면 논리의 비약이 되겠는지요.

우리는 폭발적으로 그 세를 떨쳐 가고 있는 학원 민주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임버릇처럼 교권의 수호를 운위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 공권력에 의해서 것처럼 폭력적인 교권 침해가 자행될 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요즘 들어 부쩍 그와 같은 소리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모대학의 ‘서명 교수’ J 형을 떠올립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던 동료 교수들이 ‘학내 비리 청산’을 위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흥분한다니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일이 또 있을런지요? 우리가 한 사람의 평범한 노동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별 강의의 진행 여부보다도(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수 모두의 당연한 몫을 손상시켜 왔던 구조적 모순의 척결일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현재 각 대학에서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교수협의회는 우리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계급적 위치를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교수들은 무엇보다도 그간의 고립적 개인주의로부터 전전한 집단주의로

의 이행을 경험할 것이며, 또 그간의 고립적·개인적 행태가 구조적 모순을 방조하는 준범죄 행위(?)였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두텁게 축적된 모순 구조의 척결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해야만 한다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사회 저변에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치열

하게 벌어지고 있는 변혁 운동의 일환이라는 연대감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선생님!

두서없이 적다 보니 벌써 허용된 지면이 다한 것 같습니다. 번잡한 시절에 쓸데없는 신변담이나 늘어 놓은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방학이 되면 찾아 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